臟腑相通關係에 關한 考察

-『醫學入門』을 중심으로 -

朴喆 · 丁彰炫 · 白裕相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敎室

The study on the Jangbu-sangtong.

Park cheol, Jeng chang-hyun, Baik you-sang.

Departmen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Jangbu-sangtong-koange(臟腑相通關係) can be studied how it is applied in the clinics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s of Kehabchu(開闔樞) in the aspect of Meridian Samum-samyang(三陰三陽) and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s of Oheng(五行) in the organs themselves in view of Jangsanghak(臟象學).

Heart belongs to Su-soum(手少陰). It governs Sinmyoung(神明). Gallbladder belongs to Jok-soyang(足少陽). It governs the Kyouldan(決斷). Soum(少陰) functions as a Chu(樞) in Um(陰) to communicate with Soyang(少陽) which is a Chu(樞) in Yang(陽). Heart is Wha(火) and gallbladder is Mok(木), therefore they communicate each other. Ondamtang(溫膽湯) can be used by the theory of Sangtong(相通) that when there is Simbyoung-jongchung(心病怔忡), it can be cured by the means of Ondam(溫膽) because both heart and gallbladder hate empty. Also, Yanghyoulchoungsimtang(養血淸心湯) is applicable to gallblader disease, jeonkwang(癲狂) because it is effective in Bosim(補心).

key words : Jangbu-sangtong-koange(臟腑相通關係), Kehabchu(開闔樞), Samum-samyang (三陰三陽), Jangsanghak(臟象學)

Ⅰ. 序 論

臟腑相通關係는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 「五臟穿鑿論」이라 하여 기술되었으며 최근에 와서는 李正來의 醫易同源[1]에 각 臟腑의 五行속성과 易의 관점에서 서술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양방의 질병치료에 臟腑相通關係를 응용하는 시도도 보고[2]되고 있다. 또한

1) 李正來. 醫易同源 上下. 동양학술원. 199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형상의학회에서는 지산도표가 臟腑相通關係를 근거로 하여 인체를 그린 그림[3]이라 하였다.

필자가 이러한 臟腑相通關係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素問·血氣形志篇』[4]과 『靈樞·本輸篇』[5]에 근거하는 表裏관계에 더하여 장부관계이론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또한 治法이 함께 있으므로 실제 임상에서 응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表裏관계와 臟腑相通關係를 비교해보면 表裏관계는 肝과 膽, 心과 小腸, 脾와 胃, 肺와 大腸, 腎과 膀胱, 心包와 三焦의 관계고 表裏관계의 특징은 五臟六腑의 五行의 속성이 동일하고 經絡의 三陰三陽의 속성으로는 表裏가 일치한다. 반면 臟腑相通關係는 心과 膽, 肝과 大腸, 脾와 小腸, 肺와 膀胱, 腎과 三焦, 胃와 命門이 서로 相通하는 관계다. 이는 각 臟과 腑가 經絡의 三陰三陽의 속성상으로 볼 때는 開闔樞의 작용이 동일하며 本臟腑의 五行의 속성상으로는 相生이나 相成의 관계라는 특징이 있다.

인체에서 볼 때 表裏관계는 공간적으로 인체의 전면, 측면, 후면의 측정 부위를 공유하면서 겉과 속이 되는 관계로 볼 수 있으며[6], 開闔樞관계는 陰과 陽 각각 氣의 出과 入 그리고 出入의 조절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기능활동과 陰陽 氣의 上下 升降 및 조절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능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表裏관계는 공간적으로 인체의 특정 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表와 裏가 된다는 점에서 공간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며, 相通관계는 開闔樞에 따른 氣機의 변화라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즉, 氣機의 변화는 升降出入을 위주로 하는데 臟腑相通關係에서 手經와 足經은 인체의 上下로 氣의 升降의 통로가 되며 開闔樞는 氣의 出入의 기전이 된다. 그러므로 氣機의 升降出入이 上下를 통로로 陰氣와 陽氣가 각각 出과 入 및 出入의 조절이라는 同一한 기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開闔樞가 相通關係에 갖는 意義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相通하는 각 臟腑들의 生理, 病理는 臟象學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五行의 相生과 相成의 관계로서 드러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五臟穿鑿論」의 臟腑相通關係의 의의는 治法이 나와 있다는데 있으며 이는 실제 임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는 『醫學入門』에 언급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7], 臟腑相通關係에 있어서 經絡의 三陰三陽 측면에서 開闔樞의 속성과 臟腑 자체의 五行 속성에 의한 관계와 臟象學적인 이해를 통하여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응용되어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本 論

1. 五臟穿鑿論의 淵源

「五臟穿鑿論」은 『醫學入門』「臟腑條分」 말미에 보이며 『東醫寶鑑』「臟腑篇」에도 인용되어

2) 蔣燕. 淺談李梴的"臟腑相通論". 遼寧中醫雜誌 第5期. 1990. p1. 2

3) 이용태. 臟腑相通과 芝山圖表의 理解. 大韓形象醫學會誌 4권. 2003. p183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95. " … 足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厥陰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爲足陰陽也 手太陽與少陰爲表裏 少陽與心主爲表裏 陽明與太陰爲表裏 是爲手之陰陽也 … "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2. " … 肺合大腸 大腸者 傳道之腑 心合小腸 小腸者 受盛之腑 肝合膽 膽者 中正之腑 脾合胃 胃者五穀之腑 腎合膀胱 膀胱者津液之腑也 … "

6) 林鎭錫.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開闔樞.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1권. 1998. p26.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은 인체를 前後, 表裏, 側面으로 나누어 배분한 개념이다. … 중략 … 體幹에서 三陰三陽을 表裏로 배속한 결과 三陽은 모두 표면이고, 三陰은 모두 몸 속이다. 그리고 겉부분인 三陽에서 陽明, 太陽, 少陽은 각각 前面, 後面, 側面이며, 속 부분인 三陰에서 太陰, 少陰, 厥陰은 각각 前面, 後面, 中間 부분이다." 라 하였다.

7) 「東醫寶鑑」은 「醫學入門」을 인용하였으며 첨삭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며 본론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있다. 그러나 『東醫寶鑑』에는 『醫學入門』의 내용에 비해 달라진 부분들이 있으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醫學入門』의 원문

五臟穿鑿論 曰

心與膽相通 心病怔忡 宜溫膽爲主 膽病戰慄癲狂 宜補心爲主

肝與大腸相通 肝病宜疏通大腸 大腸病宜平肝經爲主

脾與小腸相通 脾病宜瀉小腸火 小腸病宜潤脾土爲主

肺與膀胱相通 肺病宜淸利膀胱水 後用分利淸濁 膀胱病宜淸肺氣爲主 兼用吐法

腎與三焦相通 腎病宜調和三焦 三焦病宜補腎爲主

胃與命門相通津液 胃虛宜大補右腎

此合一之妙也[8]

『東醫寶鑑』의 원문

臟腑相關 內經曰 五臟不平 六腑閉塞之所生也

五臟穿鑿論 曰

心與膽相通 心病怔忡 宜溫膽爲主 膽病戰慄癲狂 宜補心爲主

肝與大腸相通 肝病宜疏通大腸 大腸病宜平肝經爲主

脾與小腸相通 脾病宜瀉小腸火 小腸病宜潤脾土爲主

肺與膀胱相通 肺病宜淸利膀胱水 膀胱病宜淸肺氣爲主

腎與三焦相通 腎病宜調和三焦 三焦病宜補腎爲主

此合一之妙也[9]

『東醫寶鑑』에는 "內經曰 五臟不平 六腑閉塞之所生也"라는 부분이 앞에 더 있으며 臟腑相通關係에서는 『醫學入門』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두 군데 빠진 부분들이 있다. 첫 번째는 肺와 膀胱의 관계에서 "肺與膀胱相通 肺病宜淸利膀胱水 膀胱病宜淸肺氣爲主"라 하여 肺病에서 "後用分利淸濁" 부분과 膀胱病에서 "兼用吐法"이 빠져있다. 두 번째는 胃와 命門의 관계 전부분이 빠져있다.

『東醫寶鑑』의 원문 앞부분에 『黃帝內經』의 "五臟不平 六腑閉塞之所生也"라는 문장을 인용한 까닭은 臟腑相通關係에서 五臟의 병리적 상황들이 六腑가 소통이 안되는 문제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것으로 각 五臟病에 해당 六腑의 閉塞과 鬱滯를 해소함으로써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빠진 부분들 중에 肺病과 膀胱病에서 後用分利淸濁과 兼用吐法은 淸利膀胱水와 淸肺氣爲主이라는 주치료법에 속하는 보조적인 치료법이라 할 수 있으므로 빠진다해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또한 胃와 命門의 관계는 일단 心包를 命門과 동일하게 보지 않는다면 논의가 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10] 빠진 것으로 보인다.

8) 李梴, 編註醫學入門, 大成文化社 点校本, 1990. p369, 370. 五臟穿鑿論에는 "心과 膽은 서로 通하기 때문에 心病으로 가슴이 두근거릴 때에는 膽을 따뜻하게 하는 것을 爲主로 해야 한다. 膽病으로 몸을 몹시 떨거나 癲狂症이 생겼을 때에는 心을 補하는 것을 爲主로 해야 한다. 肝과 大腸은 서로 通하기 때문에 肝病에는 大腸을 疏通시켜야 하고 大腸病에는 肝經을 고르게 하는 것을 爲主로 해야 한다. 脾와 小腸은 서로 通하기 때문에 脾病에는 小腸의 火를 瀉해야 하며 小腸病에는 脾土를 潤하게 하는 것을 爲主로 해야한다. 肺와 膀胱은 서로 通하기 때문에 肺病에는 膀胱의 水氣를 淸利하게 하는 것을 爲主로 하고 후에 淸濁을 나누어 나가게 하며 膀胱病에는 肺氣를 淸하는 것을 爲主로 하고 吐法을 兼해야 한다. 腎과 三焦는 서로 通하기 때문에 腎病에는 三焦를 調和시켜야 하고 三焦病에는 腎을 補하는 것을 爲主로 해야한다. 胃와 命門은 서로 津液이 通하기 때문에 胃虛에는 右腎을 大補해야한다. 이것은 하나의 원칙에 부합시켜 치료하는 妙한 방법이다."고 씌어 있다.

9) 許浚, 東醫寶鑑 內景篇, 大成文化社, 1990. p330

10) 이에 관해서는 이용태의 「臟腑相通과 芝山圖表의 理解」(大韓形象醫學會誌 4권, 2003. p181, 182)에서는 "장부 상통에 대하여 『醫學入門』에서는 육장육부설에 근거하여 심-담, 간-대장, 비-소장, 폐-방광, 신-삼초, 위-명문 상통을 언급하였으나, 『東醫寶鑑』에서는 위-명문 상통에 대한 내용을 없애고 오장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최근에 한국의 李正來는 醫易同源이라는 저서에서 오행과 역으로써 『醫學入門』「五臟穿鑿論」의 臟腑相通關係를 설명하여 밝혀놓았고 이것은 본론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현대 중국에서는 『醫學入門』「五臟穿鑿論」의 臟腑相通關係의 응용으로 膽囊病과 冠心病이 동시에 있는 환자의 치험례를 보고[11]하고 있다. 이 환자는 膽囊病의 증상이 발생할 때 冠心病의 증상이 심해지는데 서양의학적으로는 膽道와 心臟의 신경이 척추부위에서 교차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며 한의학적으로는 膽의 相火가 心君火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변증에 따라 膽病을 치료하면 膽病뿐 아니라 冠心病의 증상도 소실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형상학회[12]에서는 지산도표를 臟腑相通關係를 근거하여 인체를 그린 그림이라 하였으나 이론적 근거로 歲氣會同과 十二地支의 方合과 三合에 의해 4등분하거나 手足陰陽 각각의 開闔樞의 묶음으로 4개 특성으로 나누었고, 이를 精氣神血을 대입하여 실제 임상에 응용한다. 그러므로 水經과 足經이 같은 開闔樞의 속성을 지닌 짝을 이루는 臟腑相通關係에 따른 장부의 관계나 治法과는 방향이 다르며 본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과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산도표 자체의 성립배경에 「五臟穿鑿論」에 따른 臟腑相通關係가 포함된 것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2. 開闔樞에 관한 諸家學說

臟腑相通關係를 설명하기 앞서서 開闔樞의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기에『黃帝內經』이래로 諸家의 학설을 살피고 고찰하고자 한다.[13]

『黃帝內經』에는 開闔樞에 대해 『素問·陰陽離合論』과 『靈樞·根結』에 나타나 있다.

『素問·陰陽離合論』에는 三陽[14]에 대해서

"聖人이 南쪽을 向해 서게 되면, 前面을 廣明이라 하고 背後를 太衝이라 합니다. 太衝의 땅을 少陰이라하고 少陰의 上을 太陽이라 합니다. 太陽은 至陰에서 根起하고 命門에서 結하는데 陰中之陽이라 합니다. 身半以上을 廣明이라하고 廣明의 下를 太陰이라 하며 太陰의 前을 陽明이라 합니다. 陽明은 厲兌에서 根起하는데 陰中之陽이라 합니다. 厥陰의 表를 少陽이라 하며 少陽은 竅陰에서 根起하는데 陰中之少陽이라고 합니다. 이러므로 三陽의 離合은 太陽은 開가 되고 陽明은 闔이 되며 少陽은 樞가 됩니다."

라 하였고 三陰[15]에 대해서는

"外는 陽이 되고 內는 陰이 되니 中은 陰이 됩니다. 太衝이 아래에 있는 것을 太陰이라 하는데, 太陰은 隱白에서 根起하고 陰中之陰이라 합니다. 太陰의 後를 少陰이라 하는데 少陰은 湧泉에서 根起하며 陰中之少陰이라 합니다. 少陰의 前을 厥陰이라 하는데 厥陰은 大敦에서 根起하며 陰之

부설의 상통설을 언급하였다. 대신 명문을 심포로 바꾸어 심포-위 상통에 관한 내용을 『東醫寶鑑』「胸門」과 『東醫寶鑑』「暑門」에서 '심포락이 위와 더불어 서로 응한다'고 하였고, 『東醫寶鑑』「婦人門」에서는 '자궁의 경맥이 胃口에 연락되어있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육장육부설에 근거한 장부 상통을 설명하고 있고 아울러 심포는 곧 포와 같은 개념임을 제시하였다."라 하였다.

11) 蔣燕, 上揭書, p1, 2

12) 이용태, 臟腑相通과 芝山圖表의 理解, 大韓形象醫學會誌 4권, 2003

13) 본 단락은 李容範의 『楊上善의 三陰三陽 學說에 대한 硏究』(경희대학교대학원, 1996)에서 주로 발췌하고 수정하였으며 다른 내용들을 보충하여 고찰하였다.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硏究院 出版部, 1981. p29. " … 聖人南面而立 前曰廣明 後曰太衝 太衝之地 名曰少陰 少陰之上 名曰太陽 太陽根起於至陰 結於命門 名曰陰中之陽 中身而上名曰廣明 廣明之下名曰太陰 太陰之前 名曰陽明 陽明根起於厲兌 名曰陰中之陽 厥陰之表 名曰少陽 少陽根起於竅陰 名曰陰中之少陽 是故三陽之離合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 "

15) 洪元植, 上揭書, p29. " … 外者爲陽 內者爲陰 然則中爲陰 其衝在下 名曰太陰 太陰根起於隱白 名曰陰中之陰 太陰之後 名曰少陰 少陰根起於湧泉 名曰陰中之少陰 少陰之前 名曰厥陰 厥陰根起於大敦 陰之絶陽 名曰陰之絶陰 是故三陰之離合也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 "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絶陽인데 陰之絶陰이라 합니다. 이러하니 三陰의 離合은 太陰이 開가 되고 厥陰은 闔이 되며 少陰은 樞가 됩니다."

라 하여 三陰三陽의 位置와 開闔樞의 名稱에 대하여 나타나있다.

『靈樞, 根結』에는 三陽[16]에 대해서

"太陽은 至陰에 根하여 命門에 結하는데 命門은 目입니다. 陽明은 厲兌에 根하여 顴大에 結하는데 顴大는 鉗耳입니다. 少陽은 竅陰에 根하여 窗籠에 結하는데 窗籠는 耳中입니다. 太陽은 開가 되고 陽明은 闔이 되고 少陽은 樞가 됩니다. 그러므로 開가 折하면 肉節이 瀆하여 暴病이 起하니, 故로 暴病은 太陽에서 이를 取하되 有餘와 不足을 視할 것입니다. 瀆이란 皮肉이 宛瞻하며 弱함입니다. 闔이 折하면 氣가 止息할 바가 없어서 痿疾이 起하니, 故로 痿疾은 陽明에서 이를 取하되 有餘와 不足을 視할 것입니다. 止息할 바가 없는 것은 眞氣가 稽留하여 邪氣가 거기에 居함입니다. 樞가 折하면 骨繇하여 地에 安하지 못하니, 故로 骨繇는 少陽에서 이를 取하되 有餘와 不足을 視할 것입니다. 骨繇란 節이 緩하여 收하지 못함이니, 이른바 骨繇라 함은 搖하는 까닭이라 마땅히 그 本을 窮하여야 합니다."

라 하였고 三陰[17]에 대해서는

"太陰은 隱白에 根하여 太倉에 結하고, 少陰은 涌泉에 根하여 廉泉에 結하고, 厥陰은 大敦에 根하여 玉英에 結하고 膻中에 絡합니다. 太陰이 開가 되고 厥陰이 闔이 되고 少陰이 樞가 됩니다. 그러므로 開가 折하면 倉廩이 輸할 바가 없어 腸洞하니, 腸洞하는 者는 太陰에서 이를 取하되 有餘와 不足을 視할 것입니다. 故로 開가 折한 者는 氣가 不足하여 病이 生합니다. 闔이 折하면 氣가 絶하여 잘 悲하니, 悲하는 者는 厥陰에서 이를 取하되 有餘와 不足을 視할 것입니다. 樞가 折하면 脈에 結한 바가 있어 不通하니, 不通하는 者는 少陰에서 이를 取하되 有餘와 不足을 視하여, 結이 있는 者는 이를 모두 取합니다."

라 하여 開闔樞의 病的狀況이 나타나 있다.

이에 대하여 楊上善은 『黃帝內經太素』에서 開를 關으로 기술하여 三陰, 三陽의 關闔樞를 각각 內門과 外門으로 비유하여 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빗장(關)과 문짝(闔)과 지도리(樞)가 각각 맡은 바 일을 다 하여야 하듯이 人體의 生命現狀도 三陰과 三陽이 각각 맡은 바 일을 다하여야 제대로 발현한다고 생각하였다.[18]

馬蒔는 "樞가 아니면 설 바가 없고 闔이 아니면 들어올 바가 없고, 開가 아니면 나갈 바가 없다"고 하여 開闔의 意味를 出入으로 보았다.[19]

張景岳은 開闔樞가 表와 裏 및 表裏之間에 각각 위치하여 出과 入 및 出入의 조절이라고 보았다. 특히 三陽에서는 "太陽을 開라 함은 陽氣가 밖으로 發散함을 말하는 것이니, 三陽 중의 表가 되며, 陽明을 闔이라 함은 陽氣가 안으로 축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三陽의 表가 되며, 少陽을 樞라 함은 陽氣가 表裏의 사이에 있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어 마치 樞機와 같은 역할을 함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開'를 그대로 '열다'의 의미로 풀고 이를 陽氣의 發散과 潛藏의 생리적 활동으로 설명하였다.[20]

汪機는 張景岳과 같이 開闔樞가 表裏와 表裏之

1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50. " … 太陽根於之至陰 結於命門 命門者 目也 陽明根於厲兌 結於顴大 顴大者 鉗耳也 少陽根於竅陰 結於窗籠 窗籠者 耳中也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故 開折 卽肉節瀆而暴病起矣 故暴病者 取之太陽 視有餘不足 瀆者 皮肉宛瞻而弱也 闔折 卽氣無所止息而痿疾起矣 故痿疾者 取之陽明 視有餘不足 無所止息者 眞氣稽留 邪氣居之也 樞折 卽骨繇而不安於地 故骨繇者 取之少陽 視有餘不足 骨繇者 節緩而不收也 所謂骨繇者 搖故也 當窮其本也 … "

17) 洪元植, 上揭書. p50. " … 太陰根於隱白 結於太倉 少陰根於涌泉 結於廉泉 厥陰根於大敦 結於玉英 絡於膻中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 故開折 卽倉廩無所輸 腸洞 腸洞者 取之太陰 視有餘不足 故開折者 氣不足而生病也 闔折 卽氣絶而喜悲 悲者 取之厥陰 視有餘不足 樞折 卽脈有所結而不通 不通者 取之少陰 視有餘不足 有結者 皆取之不足 … "

18) 李容範, 上揭書. p469

19) 李容範, 上揭書. p478

20) 李容範, 上揭書. p47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間에 居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張志聰은 開主外出闔主內入 樞主外內之間이라 하여 出과 入과 出入의 조절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吳崑은 張景岳의 설을 한층 발전시켜 三陰의 생리작용을 開闔樞로 설명하였다. 즉 三陽에서는 太陽이 陽氣의 발산을 주관하여 開가 되고 陽明은 陽氣의 潛藏을 주관하여 闔이 되며, 少陽은 그 가운데에서 變化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樞가 되며, 三陰에서는 太陰이 陰氣를 흩트려 開가 되고, 厥陰은 없어지려는 陰을 받아들여 闔이 되고, 少陰은 精氣와 神氣를 주관하여 그 太陰과 厥陰의 작용을 조절하므로 樞가 된다고 보았다.[21]

楊力[22][23]은 開는 기의 운행, 闔은 기의 내장, 樞는 기의 조절작용으로 보았다. 太陽은 三陽의 表를 주관하여 체표의 氣化를 주재하며, 陽明은 三陽의 裏이고 陽氣의 內藏을 주관하여 모든 기를 化生시키는 근원으로 보았으며, 少陽은 表裏 사이에서 內外로 陽氣의 盛衰를 조절하고 表裏의 기에 대한 지도리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太陰은 三陰의 表가 되어 기혈의 유주와 진액의 포산을 담당하며, 厥陰은 陰의 裏로 手厥陰心包는 신명을 수호하고 足厥陰肝은 혼을 내장하고 혈액의 저장을 주관하며, 少陰에 대해서는 手少陰心은 혈맥의 外達을 주관하고, 足少陰腎은 津液의 운행을 주관하고 여러 경맥을 소통시키기 때문에 少陰은 心腎, 水火, 上下가 서로 교체하는 지도리가 되어 조절한다고 보았다.

이로써 고찰하여 보면 開闔樞는 陰과 陽 각각 氣의 出과 入 그리고 出入의 조절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機能活動을 주로 하며 臟腑와 연계하여 볼 때는 陰陽 氣의 上下 升降 및 조절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능활동도 있음을 알 수 있다.

3. 心과 膽의 關係

21) 李容範, 上揭書, p479, 480
22) 玉到勳,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에 대한 考察,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9. p44, 45
23) 楊力, 中醫運氣學, 法仁文化社, 2000. p193

(1) 開闔樞에서 心과 膽

心은 手少陰에 속하고 膽은 足少陽에 속하여 少陰은 陰에서의 樞와 少陽은 陽에서의 樞의 기능을 하여 樞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素問·靈蘭秘典論』[24]에는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이라 하였고 『靈樞·邪客篇』[25]에는 "心者五臟六腑之大主 精神之所舍也"라 하여 心主神明하고 이는 사상, 감정 등의 정신활동으로 나타난다. 또 『素問·五臟生成篇』[26]에서 "諸血者 皆屬於心"이라 하였고 『素問·痿論』[27]에서는 "心主身之血脈"이라 하여 心主血脈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心은 神明과 陰인 血脈을 주관하여 인체의 전체적인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28] 少陰의 樞의 기능과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素問·靈蘭秘典論』[29]에 "膽者 中正之官 決斷出焉"라 하여 膽主決斷한다 하였고 이는 精神에 刺戟을 주는 不良한 요소들을 방어 또는 제거하여 氣血의 정상적인 운행을 維持함으로써 臟器間의 相互協調關係를 확보케 하는 작용을 한다.[30] 이러한 膽의 判斷하고 決斷하는 기능은 表裏간의 기를 조절하는 少陽의 樞기능과 通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醫學入門』「臟腑總論」[31][32]에서는 "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4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99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9
27) 洪元植, 上揭書. p166
28) 朴贊國, 臟象學, 成輔社, 1992. p167
29) 洪元植, 上揭書. p34
30)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基礎理論編〕,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9. p3 23
31) 李挺, 國譯編註醫學入門, 南山堂 影印本, 1984. p413의 해석에 따랐다.
32) 李挺, 編註醫學入門, 大成文化社 点校本, 1990. p325, 326. " … 經曰凡十一臟 皆取結於膽 蓋風寒在下 燥熱在上 濕氣居中 火獨遊行其間 以主榮衛而不息 火衰則爲寒濕 火盛則爲燥熱 故曰中正之官 決斷出焉 … 중략 … 而況於人乎 人之所以靈於物者 心乎神乎 至尊至貴至淸至淨 其十二官之主乎 故曰心靜則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 내경에 오장육부의 십일장은 다 작용의 결정을 담에서 취한다 하였으니 대저 (간신의 기와 같은) 풍한은 음성이므로 하부에 있게 되고 (심폐의 기와 같은) 조열은 양성이므로 상부에 있게 되고 (비의 기와 같은) 습기는 (음양을 갖춘 성질로) 중앙에 있으나 (담, 삼초, 포락, 명문의 기와 같은) 상화만은 홀로 위 五氣의 사이를 유행하여 영위작용을 주관하여 휴식함이 없는 것이니 결과 이 화가 쇠하면 한습증이 생기게 되고 이 화가 성하면 조열증이 생기게 된다. 그러므로 담을 중정의 관이니 결단이 여기서 나온다고 말한 것이다. … 중략 … 사람에 있어서 (담을 중심한 상화의 작용이) 이보다 더 미묘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사람이 다른 만물보다 영민한 까닭은 심이 있고 신이 있는 때문이다. 이것은 지극히 높고 지극히 귀하고 지극히 맑고 지극히 깨끗한 것이니 심은 그 십이장부인 십이관의 주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심이 안정하면 만병이 없어지고 심이 동요하면 만병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하는 까닭이 이 점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膽의 相火에 의한 決斷작용과 心의 神明의 관계를 밝혀 心膽 서로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잘 나타나 있다.

(2) 五行에서 心과 膽[33]

心은 火에 속하고 膽은 木에 속하니 木이 火를 生하는 母子關係가 되는 것이다. 木이 火를 生하는 기전이 弱해지면 火도 또한 弱해지며, 膽氣가 弱해져 中正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心氣도 따라서 쇠약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心病의 怔忡에는 溫膽을 爲主로 한다고 하였다.

戰慄과 癲狂은 心의 神明이 착란하여 나타나는 病으로 이것은 心火를 生하는 膽木에서부터 그 기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膽病이라고 한 것이다. 膽木이 항진하여 성하면 火氣가 성하여 心陰인 血이 부족하여진다. 膽木이 沈滯하여 부족해지면 火氣가 약하여져서 氣도 沈滯하여 生血하지 못하며[34], 膽氣가 쇠약하여 決斷작용이 약해지면 情志의 鬱滯로 氣가 鬱結하게 된다. 그러므로 心을 補하는 것은 火를 淸하고 陰을 滋潤하여 心血을 補하거나 氣를 북돋아 生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3) 임상적 의의

① 心病

만약 神明에 속하는 情志가 鬱結되어 氣가 鬱滯되어 이로 인해 痰이 생겨 膽의 기능을 저해하면 膽虛해지고 이를 흔히 心膽虛怯이라 한다. 이는 溫膽湯으로 치료하고 『東醫寶鑑』「內景篇」夢門, 虛煩不睡[35]에 잘 나타난다.

"溫膽湯은 心과 膽이 허약하여 걸핏하면 잘 놀라고 꿈자리가 사나우며 虛煩이 생겨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반하, 진피, 백복령, 지실 각각 8g, 청죽여 4g, 감초 2g씩 위의 약들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생강 5쪽, 대추 2알과 함께 물에 달여 먹는다."라 하여 痰과 氣滯를 치료하여 鬱滯된 膽木의 기능을 회복시켜 心病 怔忡을 치료할 수 있다.

② 膽病

一例로 『東醫寶鑑』「內景篇」神門, 癲狂[36]에 보면 養血淸心湯은 정신을 과도하게 써서 된 癲狂을 치료하는 처방인데 "양혈청심탕은 당귀, 생지황 각각 6g, 인삼, 백출, 복신, 강제원지, 산조인, 천궁 각각 4g, 감초 2g씩 위의 약들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라 하여 膽氣의

萬病息. 心動則萬病生"

33) 본 단락은 李正來의 「醫易同源 上」(동양학술원, 1993)에서 주로 발췌하고 수정하였으며, 다른 내용들을 보충하였다.

34) 李正來, 上揭書. p485

35) 許浚, 上揭書. p246. "溫膽湯 治心膽虛怯 觸事易驚 夢寐不祥 虛煩 不得睡 半夏 陳皮 白茯苓 枳實 各二錢 靑竹茹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 薑五片 棗二枚 水煎服 驚悸怔忡失志不寐 皆是痰涎沃心 宜理痰氣此藥主之"

36) 許浚, 上揭書. p191. "養血淸心湯 當歸 生地黃 各一錢半 人蔘 白朮 茯神 遠志薑製 酸棗仁炒 川芎 各一錢 甘草五分 右剉作一貼水煎服"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衰弱으로 情志의 鬱滯로 氣가 鬱結하게 된 것은 茯神, 遠志로 鬱滯된 것을 풀고, 膽木이 침체하여 火氣가 약하여져서 氣도 침체하여 生血하지 못하는 것은 人蔘, 白朮, 甘草로 기를 북돋아 生血할 수 있게 하여 當歸, 生地黃으로 心血을 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膽病 癲狂에 補心하는 한 방법을 알 수 있다.

4. 肝과 大腸의 相通關係

(1) 開闔樞에서 肝과 大腸

『素問·陰陽離合論』[37]에서는 太陽爲開 陽明爲闔 少陽爲樞 太陰爲開 厥陰爲闔 少陰爲樞라 하였다. 肝은 足厥陰에 속하고 大腸은 手陽明에 속하여 厥陰은 陰에서의 闔과 陽明은 陽에서의 闔의 작용을 한다.

肝은 足厥陰, 大腸은 手陽明에 속하며 肝은 陰中之陽으로 下焦에 居하며 大腸 또한 下焦에 居한다. 肝은 疏泄[38]과 藏血[39]을 主하니 陰이 내부로 응축되었다가 그 응축된 힘에 의해 陽으로 발휘하는 象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藏血의 작용은 厥陰의 闔기능에 응한다 할 수 있다.

또한 『素問·靈蘭秘典論』[40]에서 "大腸者 傳導之官 變化出焉"이라 하였고 朴贊國[41]은 "'變化'는 음식물의 찌꺼기 즉, 糟粕이 便이 되는 과정이다. 大腸은 위로 小腸에 연결되어, 小腸이 淸濁을 分別한 후, 남은 음식물의 찌꺼기와 수액을 闌門을 통해 받아들인다. 大腸은 이것을 받아들인 후 여분의 水液을 흡수해서 便을 만들어 大腸의 말단으로 보낸다. 항문을 통해서 便을 체외로 배설하는 기능이 大腸의 기본기능인 '傳化糟粕'이다"라 하였다. 이에 여분의 水液을 흡수하여 陰血로 변화하는 것은 陽明의 闔기능에 응한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肝病에 大腸을 疏通시켜 大腸의 闔기능을 회복하여 肝의 藏血기능을 회복시키고 또한 肝의 疏泄작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肝의 藏血기능도 원활하여짐을 알 수 있다.

(2) 五行에서 肝과 大腸[42]

肝은 木에 해당하고 大腸은 金에 해당하며 木은 春升之氣를 행하고 金은 秋燥之氣를 행한다. 이 春升之氣가 夏火를 生하고 夏火가 秋燥로 나아가는 것이며, 다시 秋燥의 氣가 淸肅의 金으로 化하여 水를 生하고 水가 木을 生하여 그 根을 滋潤케 하는 것이다.[43]

그러므로 肝木은 火를 生하고 이 木火의 發散기능은 肺에 가서 衛氣로 行하며 收降 기운으로 이루어지고 大腸에 가서는 溫燥의 氣로써 수분을 수렴하게 하는 것이다[44]. 또한 이 肺, 大腸이 收斂, 下降機能으로 水를 生하는 것은 肝으로 가서 滋潤을 하여 血을 충당케 하는 것이다. 때문에 木火의 發散기능은 金에 가서 衛氣와 收降으로 나타나고 金水의 收斂, 下降기능은 木에 가서 生氣와 藏血기능을 이룩하는 것이다.[45]

인체는 항상 水와 火가 調和되고 金과 木이 相成이 되며 土는 中和를 하여 不寒不熱하며 燥와 潤이 太過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調和된 기능에서는 肝木은 火를 生하면서도 太過하지

37) 洪元植, 上揭書, p29
38) 朱丹溪의 格致餘論 陽有餘陰不足論에 "主閉藏者 腎也 司疏泄者 肝也"라 하여 肝主疏泄에 대한 논술이 나타난다. 疏는 疏通이며 泄은 發泄, 升發의 뜻이다.
39) 朴贊國, 上揭書, p185에 "肝藏血 心行之 人動則血運于諸經 人靜則血歸于肝臟 何者 肝主血海故也"라 하였다.
40) 洪元植, 上揭書, p34
41) 朴贊國, 上揭書, p177
42) 본 단락은 李正來의 『醫易同源 上』(동양학술원, 1993)에서 주로 발췌하고 수정하였으며, 다른 내용들을 보충하였다.
43) 李正來, 上揭書, p487
44) 12辟卦 중에 正月에는 泰卦가 해당되어 陽이 아래에 3개 陰이 위에 3개가 있다. 9월에 해당하는 剝卦는 하나의 陽이 위에 있고 다섯 陰이 밑에 있다. 四時로 取象한다면 봄에 三陽의 陽氣가 發散되어 가을에 一陽의 肺의 衛氣로 行하며 收降 기운으로 이루어지며, 大腸에 가서는 溫燥의 氣로써 水液을 收斂하게 한다 할 수 있는 것이다.
45) 李正來, 上揭書, p48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않게 되어 疏泄기능을 발휘하고 大腸은 燥化하면서도 收降작용으로 傳道기능을 발휘하며 水를 生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調和의 기능은 곧 木은 火를 生하여 金의 沈降을 억제하면서도 土를 生하여 轉生케 하고 金은 木의 發散을 억제하면서도 水를 生하여 木을 轉生케 하는 그 相成關係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46]

(3) 임상적 의의

① 肝病

『東醫寶鑑』「內景篇」肝臟門[47]에 보면 肝實에 瀉青丸과 洗肝散을 쓰고 『東醫寶鑑』「雜病篇」火門[48]에는 肝熱에 柴胡飮子를 쓴다고 하였다.

瀉青丸은 "肝이 실한 것을 치료한다. 당귀, 용담초, 천궁, 치자, 대황, 강활, 방풍 각각 등분하여 가루를 내서 꿀에 반죽하여 검실만하게 알약을 만든다. 한번에 1알씩 竹葉 달인 물과 더운 사탕물을 섞은 데 풀어먹는다. 일명 凉肝丸이라고도 한다."라 하였고,

洗肝散은 "肝이 실한 것을 치료한다. 강활, 당귀, 박하, 방풍, 대황, 천궁, 치자, 감초 각각 4g씩 위의 약들을 썰어서 물에 달여 먹는다. 용담초 4g을 넣어서 쓰면 더 좋다."라 하였으며,

柴胡飮子는 "肝熱을 치료한다. 시호, 황금, 인삼, 당귀, 적작약, 대황, 감초 각각 4g씩 위의 약들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생강 3쪽과 함께 물에 넣고 달여 먹는다."라 하였다.

金完熙[49]는 "肝火가 內結되어 大便秘結이 나타나면 通下法을 배합하여 사용한다"고 하여 肝火上炎에 龍膽瀉肝湯加大黃으로 치료[50]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肝實에 쓰는 瀉黃丸과 洗肝散에 大黃이 들어간 것이나 肝熱에 쓰는 柴胡飮子에 大黃이 들어간 것도 大腸을 疏通시켜 肝病을 치료하는 원리와 통한다고 할 수 있다.

② 大腸病

『東醫寶鑑』「內景篇」大便門[51][52]에 보면

"久泄과 洞泄은 肝經과 연관되는데 이것은 肝이 脾를 억눌러서 생긴 것이다. 이것을 腸澼이라고도 한다. 澼이라는 것은 腸 속에 물이 몰려있는 것이다."라 하였다.

大腸의 傳導기능은 氣機의 升降出入의 측면에서는 脾胃의 升淸降濁이 大腸의 降濁[53]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久泄과 洞泄을 치료하기 위해서 平肝하여 脾土의 運化를 회복시켜 升淸함으로써 大腸의 降濁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肝木의 太過함을 조절하여 大腸의 傳導之官으로써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또한, 肝의 疏泄하는 升發[54]기능이 太過하여 犯胃하면 胃의 降濁작용이 저해되고 肝火가 太過하면 胃의 降濁을 받는 大腸에 미쳐 便秘를 유발한다. 그러므로 平肝火함으로써 便秘를 치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脾와 小腸의 關係

(1) 開闔樞에서 脾와 小腸

脾는 足太陰에 속하고 小腸은 手太陽에 속하여

46) 李正來, 上揭書. p488

47) 許浚, 上揭書. p338. "瀉青丸 治肝實 當歸 草龍膽 川芎 梔子 大黃煨 羌活 防風 各等分 右爲末 蜜丸 炎實大 每一丸 竹葉湯同砂糖溫水 化下 一名 凉肝丸". "洗肝散 治肝實 羌活 當歸 薄荷 防風 大黃 川芎 梔子炒 甘草炙 各一錢 右剉 水煎服 加草龍膽 一錢尤妙"

48)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之一~四, 大成文化社, 1990. p389. "柴胡飮子 治肝熱 柴胡 黃芩 人蔘 當歸 赤芍藥 大黃 甘草 各一錢 右剉作一貼 入薑三片 水煎服之"

49) 金完熙, 한의학원론, 成輔社, 1990. p310

50)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90. p159

51) 許浚, 國譯東醫寶鑑 1권, 驪江出版社, 1994. p502

52) 許浚, 東醫寶鑑 內景篇, 大成文化社, 1990. p524. "久泄洞泄 屬於肝經 木剋土而成 亦是腸澼 澼者 腸中有積水也"

53) 丁彰炫,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한 新知見,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6권 2호, 2003. p279

54) 金完熙, 崔達永, 上揭書. p14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太陰은 陰에서의 開와 太陽은 陽에서의 開의 기능을 하여 開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素問·太陰陽明論』[55]에서는 "四肢皆稟氣於胃而不得至經"이라 하였고 『素問·奇病論』[56]에서는 "夫五味入口藏於胃 脾胃之行其精氣"라 하여 脾가 收穀精微를 吸收, 輸送함으로써 전신에 영양을 공급하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으니 이는 脾의 運化作用으로 太陰의 開기능에 응한다고 할 수 있다. 小腸 또한 胃에서 받아들인 收穀을 다시 받아들여 淸濁을 분별하여 淸氣는 脾의 運化로 연결되므로 太陽의 開기능에 응한다고 할 수 있다.

(2) 五行에서 脾와 小腸

脾는 土에 해당하고 小腸은 火에 해당하여 母子關係에 있고 또한 火土同根적인 關係에 있다. 脾는 陰土에 해당하고 胃는 陽土에 해당하는데 胃의 陽土의 燥함은 小腸의 陽火에 의한 것이다. 脾는 陰土, 胃는 陽土가 돼서 表裏관계가 되며 小腸은 陽火가 되어 陽土와 同根이 되므로 小腸은 胃와 더불어 脾와 간접적인 表裏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脾胃의 燥濕에 대한 균형에서 胃의 燥함은 小腸의 火에 힘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小腸을 治療함은 胃를 치료하는 법과 합치된다고 할 수 있다.[57]

구체적으로 『素問·靈蘭秘典論』[58]에서 "小腸者受盛之官 化物出焉"이라 하였고 朴贊國[59]은 "'化物'의 기능은 실제로 淸濁을 分別하여 分泌하는 기능이며, 脾胃의 升淸降濁機能의 구체적 실현이다"라 하였다. 그러므로 氣機의 升降出入의 관점에서는 化物의 기능은 胃에서 腐熟되어 通降되어진 수곡을 받아들여 淸濁을 분별하여 淸氣는 上升하여 脾의 運化로 연결되고 濁氣는 大腸으로 下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脾病에 小腸의 火를 瀉하여 化物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脾의 運化機能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脾는 胃와 小腸의 升淸된 기운을 받아 運化하므로 脾病에 胃와 더불어 小腸을 살펴 치료하는 것이다. 小腸病에서는 脾가 燥하면 胃陰을 부족하게 하고 胃 또한 燥하게 만들어 小腸火도 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脾陰을 滋潤하여 胃의 降濁과 小腸의 化物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3) 임상적 의의

① 脾病

『東醫寶鑑』「內景篇」脾臟門[60]에서 瀉黃散은 "일명 瀉脾散이라고도 한다. 脾에 熱이 있어서 입안이 헐고 냄새가 나는 것을 치료한다. 치자 6g, 곽향, 감초 각각 4g, 석고 3.2g, 방풍 2.4g씩 위의 약들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꿀과 술에 버무린 다음 약간 볶아 물에 달여 먹는다."라 하였다.

앞에서 小腸의 陽火는 胃의 陽土와 同根이 되어 胃의 燥는 小腸의 火로 기인하므로 小腸火의 치료는 胃를 치료함과 通한다 하였고, 이는 脾熱[61]을 치료하는 瀉黃散에서 石膏로 淸胃熱하고 梔子로 淸心肺之火하여 小腸火를 치료하는 것과 통한다 할 수 있다.

② 小腸病

『東醫寶鑑』「內景篇」大便門[62]에는 泄證有五라 하여 胃泄, 脾泄, 大腸泄, 小腸泄, 大瘕泄이 나오는데 그중 小腸泄은 "小腸泄이란 오줌이 잘 나가지 않으면서 피고름이 섞인 대변을 누며 아랫배가 아픈 것인데 이때에는 芍藥湯을 쓴다."라 하여 腸澼[63]의 증상과 가장 유사하다.

55) 洪元植. 上揭書. p112
56) 洪元植. 上揭書. p176
57) 李正來. 上揭書. p490. 요약
58) 洪元植. 上揭書. p34
59) 朴贊國. 上揭書. p176

60) 許浚. 上揭書. p354 "瀉黃散 一名 瀉脾散 治脾熱口瘡口臭 梔子一錢半 藿香甘草各一錢 石膏末八分 防風六分 右剉 作一貼 蜜酒拌 微炒 水煎服"
61)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之一~四. 大成文化社. 1990. p389
62) 許浚. 東醫寶鑑 內景篇. 大成文化社. 1990. p506. 小腸泄者 溲澁而便膿血 小腹痛 宜 芍藥湯
63)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도서출판 까치. 1990. p878에 보면 腸澼이란 "1. 이질의 옛날 병명. 건콧물이나 고름같이 흐들흐들한 곱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편,『素問·氣厥論』[64]에 "腎移熱於脾 傳爲虛腸澼 死不可治"라 하여 脾熱로 인해 腸澼이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脾에 熱이 생겨 脾胃의 陰이 虛해져 胃도 燥해지고 小腸의 火도 盛해져 小腸의 化物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이다.

小腸泄에 쓰는 芍藥湯[65]은 다음과 같으니

"芍藥湯은 이질로 오줌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대변에 피곱이 섞여 나오는 것을 치료한다. 피를 잘 돌게 하면 저절로 곱이 나오던 것이 멎고 調氣하면 저절로 뒤가 무직하던 것이 없어지는데 이 약이 바로 그런 약이다. 백작약 8g, 황연, 황금, 당귀 각각 4g, 대황 2.8g, 목향, 빈랑, 계심, 감초 각각 2g씩 위의 약들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라 하였다. 여기서 黃連, 黃芩, 大黃의 藥으로 小腸火를 瀉하고 白芍藥으로 斂陰하여 脾陰을 滋潤하는 원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肺와 膀胱의 關係

(1) 開闔樞에서 肺와 膀胱

肺는 手太陰에 속하고 膀胱은 足太陽에 속하며 太陰은 陰에서의 開와 太陽은 陽에서의 開의 기능을 하여 開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朴贊國[66]은 "肺는 宣發肅降을 주관하며 宣發은 肺氣가 상부와 외부로 宣布, 發散하는 기능활동이다. 肅降은 肺氣가 하부와 내부로 淸肅, 通降하는 기능활동으로 자연계의 淸氣를 받아들이고 이 淸氣와 脾에서 온 津液을 하부로 보내 고루 쓰이게 하며, 대사 후의 쓸모없는 水液을 膀胱으로 내려 보낸다."고 하였다. 특히 肺의 宣發作用은 같은 太陰인 脾의 運化작용을 거친 收穀精微의 淸氣를 받아 宣發하는 것으로 이는 太陰의 開의 기능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膀胱은『素問·靈蘭秘典論』[67]에 "膀胱者 洲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라 하였고 陰인 津液을 陽의 방면으로 氣化하여 表로 行하게 하는 것은 太陽의 開의 기능과 합치한다고 볼 수 있다.

肺는 水之上源이 되며 肺金과 膀胱水는 각기 上焦와 下焦에 위치한다. 上下의 氣機의 升降出入의 관점에서 肺와 膀胱의 關係와 治療에 대해『東醫寶鑑』「內景篇」小便門, 癃閉宜吐[68]에서 언급된 것이 있다.

"오줌이 나오지 않는 것은 氣와 血이 虛하기 때문이다. 實熱과 痰氣가 있어서 오줌이 나오지 않을 때에는 吐하게 하여 氣를 끌어올려야한다. 氣가 올라오면 물은 저절로 내려간다. 그것은 氣가 물을 떠받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氣가 虛한 데는 인삼, 백출, 승마를 쓰고 血이 虛한데는 四物湯을 쓴다. 痰이 심하면 먼저 二陳湯을 먹은 다음 吐해야한다. 實熱이 있으면 반드시 八正散을 써서 오줌을 잘 나가게 해야한다."

라 하였고 이어서

"어떤 환자가 오줌이 나오지 않아서 여러 가지 약을 썼으나 효과가 없었다. 그런데 丹溪가 '이것은 痰이 몰려서 생긴 병이다. 痰은 肺에 몰려있다. 肺는 上焦에 속하고 膀胱은 下焦에 속한다. 그러므로 上焦가 막히면 下焦도 막힌다. 그것은 연적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에 있는 구멍이 열려야 아랫구멍으로 물이 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二陳湯을 먼저 먹여서 몹시 吐하게 하였다. 그러자 병이 곧 나았다."라 하였다.

이 나오는 것이 창자를 씻어내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인 이름 2. 피가 섞여나오는 대변(血便)"라 하였다.

64) 洪元植, 上揭書. p140

65) 許浚, 上揭書. p531. "芍藥湯 治 痢泄澁而便膿血 令行血則便膿自愈 調氣則後重自除 此藥是也 白芍藥二錢 黃連 條芩 當歸尾 各一錢 大黃七分 木香 檳榔 桂心 甘草 各五分 右剉作一貼 水煎服"

66) 朴贊國, 上揭書. p170

67) 洪元植, 上揭書. p34

68) 許浚, 上揭書. p465, 466. "小便不通 屬氣虛血虛有實熱有痰氣閉塞皆宜吐之 以提其氣 氣升則水自降 蓋氣承在其水也 氣虛用蔘朮升麻 血虛用四物 痰氣多二陳 皆先服後探吐之 實熱當利之 用八正散 一人 病小便不通 諸藥無效 丹溪曰 此積痰病也 積痰在肺 肺爲上焦 而膀胱爲下焦 上焦肺 則 下焦塞 此如滴水之器 必上竅通而後 下竅之水出焉 乃以二陳湯 先飮 大吐之 病如失"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여기서 보면 肺와 膀胱은 上下로 뚫여있는 管의 양 끝단 上部와 下部에 위치하여 上下가 잘 疏通되기 위해서는 어느 一端이 막혀있어서는 안되는 관계로 비유를 하고 있다. 이는 肺와 膀胱의 氣機의 升降出入의 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肺病에 膀胱水를 淸利하여 分利淸濁하고 降濁하여 치료하는 것이고 膀胱病에는 肺氣를 淸하여 吐法을 兼하여 肺의 宣發, 肅降 기능을 회복시켜 치료하는 것이다.

(2) 五行에서 肺와 膀胱

肺는 金에 해당하고 膀胱은 水에 해당하여 母子關係에 있으니 肺金이 病이 되면 水를 生하여 膀胱이 有利하게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肺病에는 膀胱의 水를 淸利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다.[69] 또한 肺가 火熱에 의해 亢進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이 肺의 火熱을 淸하여 스스로 水의 化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70]. 그러므로 肺病에 膀胱의 水를 利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肺의 원인을 치료하여 膀胱의 水도 따라서 스스로 淸利하도록 한 것이다.

(3) 임상적 의의

① 肺病

『東醫寶鑑』「肺臟門」肺病治法[71]에 보면 瀉白散이 나오는데 다음과 같다.

"일명 瀉肺散이라고도 하는데 肺가 實한 것을 치료한다. 상백피, 지골피 각각 8g, 甘草 4g. 위의 약들을 썰어서 1첩으로 하여 물에 달여 먹는다. 그리고 지모, 패모, 도라지, 산치자, 맥문동, 생지황을 넣어서 쓰는 것도 좋다."

이중 桑白皮는 瀉肺平喘, 利水消腫의 효능이 있어 肺熱로 인한 咳喘을 치료하는데 多用한다[72]고 하였으니 肺病에 淸利膀胱水하여 瀉熱, 降濁하는 한 방법을 알 수 있다.

② 膀胱病

膀胱積熱을 治療하는 대표방인 五苓散[73]에 대한 『醫方集解』의 條文을 살펴보면,

" … 諸濕의 腹滿과 水飮과 水腫과 구역과 설사와 水寒함이 肺를 射하여 혹은 喘하고 或은 咳함과 中暑하여 번갈하고 신열하고 두통하며 방광의 積熱로 변비하면서 갈증이 있고 霍亂吐瀉하며 담음과 濕瘧으로 身痛하고 身重함을 통치한다. … "[74]

라 하여 上焦 肺의 증상인 水寒射肺 或喘或欬에도 쓴다 하였고,

" … 陳來章은 말하기를 秘를 치료하는 방법이 세가지가 있다. 하나는 肺가 燥하여 化氣가 능하지 못하므로 복령, 저령, 택사의 甘淡함을 이용하여 肺를 泄함으로서 降氣하는 것을 말함이며 … 중략 … 즉 위로는 갈증을 멈추게 하고 가운데로는 濕을 제거하며 아래로는 邪熱을 瀉한다고 하였다. … "[75]

라 하여 肺가 燥하여 氣化가 불능하므로 茯苓, 豬苓, 澤瀉의 甘淡함을 이용하여 肺를 泄함으로서 降氣함이 나타나 있으며,

" … 오령산을 이용하여 小水를 이롭게 하면 濕熱이 아래로 사라져서 진액이 회복되어 갈증이

69) 李正來, 上揭書. p494

70) 十二辟卦 중에 一陽이 위에 있고 五陰이 아래에 있는 剝卦가 六陰으로 된 坤卦로 變化하는 모습을 四時로 取象한다면 가을에 나머지 陽氣가 收降되어 겨울의 潛藏의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가을에 火熱이 熾盛하여서는 收降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겨울의 潛藏으로 向하여지지 않는 것과 같다하겠다.

71) 許浚, 上揭書. p361. "瀉白散 一名 瀉肺散 治肺實 桑白皮 地骨皮 各二錢 甘草一錢 右剉作一貼 水煎服 或加 知母 貝母 苦萸 梔子 麥門冬 生地黃 亦可"

72) 康秉秀 외, 本草學, 永林社, 1991. p484

73) 汪訒庵, 醫方集解 重校版, 一中社. p228의 처방구성은 豬苓, 茯苓, 白朮, 澤瀉, 桂(肉桂 또는 桂枝)다.

74) 汪訒庵, 上揭書. p228. " … 通治 諸濕腹滿 水飮 水腫 嘔逆泄瀉 水寒射肺 或喘或欬 中暑煩渴 身熱頭痛 膀胱積熱 便秘而渴 霍亂吐瀉 痰飮濕瘧 身痛身重 … "

75) 汪訒庵, 上揭書. p229. " … 陳來章曰 治秘之道有三 一曰 肺燥不能化氣 故用二苓澤瀉之甘淡 以泄肺而降氣 … 중략 … 使水道通利 則上可以止渴 中可以去濕 下可以泄邪熱也 … "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멈추는 것이다. 이것 또한 內經의 通因通用의 뜻이다. … "[76]

라 하여 內經[77]의 通因通用의 방법을 이용하여 下焦인 膀胱으로 濕熱을 통하게 하여 上焦인 肺를 치료할 수 있는 원리와 또한 膀胱積熱로 인한 膀胱病에 淸肺氣하는 한 방법을 알 수 있다.

7. 腎과 三焦의 關係

(1) 開闔樞에서 腎과 三焦

腎은 足少陰에 속하고 三焦는 手少陽에 속하여 少陰은 陰에서의 樞와 少陽은 陽에서의 樞의 기능을 하여 樞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白上龍[78]은 "腎은 陽氣를 凝縮한 陰精을 潛藏함으로써 인체 陰陽 二氣의 盛衰와 五臟의 强弱을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生殖力을 발휘할 수 있는 生氣의 源泉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체 陰陽 二氣의 盛衰는 腎의 虛實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여 腎은 水火의 盛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 水火의 心腎上下로의 소통과 관련이 있으므로 腎이 少陰의 樞기능과 應함을 알 수 있다.

또 『素問·逆調論』[79]에 "腎者水臟 主津液"이라 하였고 『素問·靈蘭秘典論』[80]에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이라 하였으니 腎의 水인 津液은 上中下 三焦의 水道를 통해 발휘되게 된다. 三焦火의 强弱으로 水道가 조절되므로 이것은 少陽의 樞의 기능과 通하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五行에서 腎과 三焦

腎에서도 左腎은 水에 속하고 右腎인 命門[81]은 火에 속하여 三焦火의 根源이 된다. 만약 腎水가 부족하여 三焦火가 盛하여진다면 三焦火를 瀉하여 水를 補하여야할 것이다[82]. 또한 三焦病에 三焦의 火가 實하다면 火를 瀉하고 腎水를 補할 것이며 三焦火가 不足하다면 그 근원인 命門火를 補해야할 것이다.

「五臟穿鑿論」 조문 중에 右腎 命門이 나오므로 左腎의 의미에서만 본다면, 앞서 말한 것처럼 左腎은 水臟으로써 津液을 主하므로 腎의 水인 津液은 三焦의 水道를 통해 발휘되게 된다. 그러므로 三焦火가 盛하거나 弱함으로 水道에 이상이 생기면 腎水 또한 발휘되지 못하므로 腎病에 三焦를 通調水道하는 것이다. 그리고 三焦의 水道를 통해 발휘될 腎水가 부족하다면 三焦火가 亢盛하게 되므로 三焦病에 補腎해야 하는 것이다.

(3) 임상적 의의

① 腎病

예를 들어 腎虛水泛[83]의 증상은 腎陽의 虛衰로 인해 膀胱의 氣化가 不利하게 되고 脾陽에 의한 水液의 運化가 失調되어 水液이 肌膚로 넘쳐나 全身이 浮腫하게 되며 水氣가 肺로 上逆하여 痰飮이 肺를 침범하게 된다. 이 경우 眞武湯[84]으로 溫腎利水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白朮, 茯苓은 中焦에서 健脾行水하고 上焦와 下焦에서 導水下行하여 三焦의 水道를 調和시킨다고 할 수 있다.

76) 汪訒庵, 上揭書. p229. " … 用五苓利其小水 則濕熱下消 津復而渴止矣 亦內經通因通用之意 … "
77) 『素問·至眞要大論』
78) 白上龍, 臟腑와 身形의 兵機 및 病症에 대한 比較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3권 2호, 2000. p34
79) 洪元植, 上揭書. p127
80) 洪元植, 上揭書. p34
81) 『醫學入門』「臟腑賦」에서 "命門은 아래로는 右腎에 寄하여, 실과 같은 줄은 굴곡을 이루며, 腎脬과 廣腸 사이를 透過하여, 위로는 心包가 되어 莫을 膈하여 기름 덩어리가 퍼져 있는 곳으로 心腸과 橫으로 연결되어 있다. 左腎과 짝이 되어 眞精을 저장하므로, 男女의 陰陽이 이로써 분별된다. 相火의 臟으로 元氣가 매여 있고, 疾病生死가 의존하는 곳이다" (命門下寄腎右 而絲系曲透脬廣之間 上爲心包 而膈膜橫連脂漫之外 配左腎以藏眞精 男女陰陽攸分 相君火以繫元氣 疾病生死是賴)라 하였다. 위와 명문의 관계는 『醫學入門』의 「五臟穿鑿論」에만 나와 있으므로 『醫學入門』에 근거하여 논거를 삼는다.
82) 李正來, 上揭書. p497
83) 金完熙, 崔達永, 上揭書. p300, 301
84)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之一~四, 大成文化社, 1990. p261에 眞武湯은 茯苓, 芍藥, 附子炮 各三錢 白朮二錢 薑五片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② 三焦病

三焦病은 上焦와 中焦와 下焦의 병이 있는데 下焦病의 경우를 들어 살펴보면, 하초의 증상은 방광의 증상으로 나타난다. 『景岳全書』[85][86]의 六味地黃丸에 대한 方解를 살펴보면 " … 腎水虧損으로 인한 小便淋閉, 頭目眩暈, 腰腿痠軟 및 陰虛發熱, 自汗盜汗, 憔悴瘦弱, 精神疲困, 失血, 失音, 水가 넘쳐 담이 되고 병이 腫脹이 되는 것을 치료하는데 이것은 壯水制火시키는 약이다. … "라 하였고 그 중 "腎水虧損으로 인한 小便淋閉를 治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小便淋閉의 下焦病에 補腎水하는 것이므로 三焦病에 補腎하는 방법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8. 胃와 命門의 關係

(1) 開闔樞에서 胃와 命門

心包는 命門이고 其經은 手厥陰이라 하였으며[87] 命門은 三焦相火의 근원이 된다. 그러므로 命門은 手厥陰에 속하고 胃는 足陽明에 속하여 厥陰은 陰에서의 闔과 陽明은 陽에서의 闔의 기능을 하여 闔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陰이 내부로 응축되었다가 그 응축된 힘에 의해 陽으로 발휘하는 厥陰의 象에서 命門火는 陽으로 발휘되는 根本的인 火라고 할 수 있다. 命門火와 胃가 津液으로 相通한다함은 이 발휘된 陽이 결국 陰으로 변화하여 수렴되는 것처럼 陽明에서 津液으로 다시 수렴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五行에서 胃와 命門

『素問·太陰陽明論』[88]에 보면 "脾病 不能爲胃行其津液"이라 하였으니 脾土가 약해지면 胃도 또한 津液을 行할 수 없다. "胃與命門相通津液 胃虛宜大補右腎"이란 바로 命門火를 북돋아 脾土를 生함으로써 胃의 津液을 行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胃의 기능이 약해지면 寒濕이 많이 생기게 되니 陽明從乎中[89]하는 治法[90]을 따라 太陰의 寒濕病을 치료하는 것이다. 이 寒濕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근원이 되는 命門火를 북돋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한 것이다.

(3) 임상적 의의

命門火를 북돋아 脾胃의 寒濕을 제거하여 津液을 行하게 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八味丸을 들 수 있다. 『景岳全書』[91]에는 八味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나온다.

"命門火가 衰하여 土를 生할 수 없어 脾胃가 虛寒해져서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적고 大便이 實하지 않으며 또는 下元이 冷하고 臍腹이 疼痛하는 것을 治療한다. 王太僕이 말한 火의 源을 도와서 陰翳를 제거한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즉 六味地黃丸에 肉桂, 製附子 각 1兩을 가한 것이다."

여기에 火의 근원을 북돋아 陰翳를 치료한다는 것이 寒濕을 제거하는 것이며 命門火를 북돋아 脾土를 生하면 胃의 津液도 다시 行하여 질 수 있는 것이다.

Ⅲ. 結 論

臟腑相通關係는 『醫學入門』과 『東醫寶鑑』에

85) 張介賓, 景岳全書 下卷, 大成文化社, 1988. p487, 488. " … 治腎水虧損 小便淋閉 頭目眩暈 腰腿疼軟 陰虛發熱 自汗盜汗 憔悴瘦弱 精神疲困 失血失音 水泛爲痰 病爲腫脹 壯水制火之劑也 … "

86) 張介賓, 國譯 景岳全書 四券, 一中社, 1993. p185

87) 李梴, 上揭書, p362, "心包則命門 其經手厥陰"에 근거한다.

88) 洪元植, 上揭書, p112

89) 『素問, 天元紀大論』『素問, 六微旨大論』『素問·至眞要大論』에 언급된 標本中氣이론에 근거한다.

90) 李正來, 上揭書, p501

91) 張介賓, 景岳全書 下卷, 大成文化社, 1988. p488. "治 命門火衰 不能生土 以治脾胃虛寒 飮食少思 大便不實 或下元冷憊 臍腹疼痛等證 王太僕曰 益火之源 以消陰翳 卽此爲也 卽 前六味地黃丸加肉桂製附子各一兩"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五臟穿鑿論」이라 하여 기술되었으며 『醫學入門』에 언급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에 와서 李正來는 각 臟腑의 五行속성과 易의 관점에서 臟腑相通關係를 서술하였으며 중국에서는 膽病과 冠心病의 치료에 臟腑相通關係를 응용하여 치료한 치험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형상의학회의 지산도표의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臟腑關係에서 흔히 알려진 表裏關係 뿐 아니라 相通關係에 의해서 臟腑關係理論이 더욱 폭넓어질 수 있으며 두 관계의 특징을 살펴보면 表裏관계는 공간적으로 인체의 전면, 측면, 후면의 측정부위를 공유하면서 겉과 속이 되는 관계로 볼 수 있으며, 相通관계의 축이 되는 開闔樞관계는 陰과 陽 각각 氣의 出과 入 그리고 出入의 조절이라는 세가지 측면에서 기능활동과 陰陽 氣의 上下 升降 및 조절이라는 측면에서의 기능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表裏관계는 공간적으로 인체의 특정 부분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表와 裏가 된다는 점에서 공간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며, 相通관계는 開闔樞에 따른 氣機의 변화라는 시간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臟腑相通關係를 요약하면 手經와 足經은 인체의 上下로 氣의 升降의 통로가 되며 개합추는 氣의 出入의 기전이 되므로 相通관계는 氣機의 升降出入이 上下를 통로로 陰氣와 陽氣가 각각 出과 入 및 出入의 조절이라는 同一한 기전으로 작용하는 臟腑間의 관계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東醫寶鑑』의 "臟腑相關 內經曰 五臟不平 六腑閉塞之所生也"라는 말에 담긴 含意와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의미를 「五臟穿鑿論」에서 보면 心과 膽에서는 溫膽하여 痰鬱을 해소하여 膽을 소통시키며, 肝과 大腸에서는 대장의 소통으로 肝病을 치료하며, 脾와 小腸에서는 小腸火를 사하여 소장의 化物기능을 회복시키며, 肺와 膀胱에서는 上焦에 위치한 肺가 下焦 膀胱와 水之上源의 관계가 되어 上下의 疏通으로 肺와 膀胱의 기능이 회복되고, 腎과 三焦에서는 三焦火를 조절하여 水道를 소통시킴으로써 水臟인 腎을 치료하며, 胃와 命門은 塞因塞用의 원리로 命門火를 도와 胃의 津液을 行하게 한다.

그리고 相通하는 각 장부간의 生理, 病理는 五行의 相生과 相成의 관계로도 드러나므로 開闔樞와 五行의 관계와 臟象學的인 이해를 통해 실제 임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心은 手少陰에 속하고 心主神明하며 膽은 足少陽에 속하고 膽主決斷하여, 少陰은 陰에서의 樞와 少陽은 陽에서의 樞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오행 속성상의 관계에서 心은 火이고 膽은 木이기 때문에 이는 그 母子관계로 相通하고 있다. 相通관계의 원리를 통해 心病 怔忡에는 溫膽하므로 心膽虛怯이라 하여 溫膽湯을 쓸 수 있고 膽病 癲狂에는 補心하므로 養血淸心湯을 응용할 수 있다.

2. 肝은 足厥陰에 속하고 肝主疏泄 및 藏血하며 大腸은 手陽明에 속하고 傳導之官으로 傳化糟粕하여, 厥陰은 陰에서의 闔과 陽明은 陽에서의 闔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오행 속성상의 관계에서 肝은 木이고 大腸은 金이기 때문에 이는 木과 金이 生成의 始終이 되어 相成관계로써 相通하고 있다. 肝病에는 疏通大腸하므로 肝實에 사용하는 瀉靑丸이나 洗肝散과 肝熱에 사용하는 柴胡飮子에서 臟腑相通關係의 원리를 살펴볼 수 있으며, 泄瀉나 便秘의 大腸病에 平肝經하는 방법을 응용할 수 있다.

3. 脾는 足太陰에 속하고 脾主運化하며 小腸은 手太陽에 속하여 小腸은 分別淸濁하여 化物을 出하여, 太陰은 陰에서의 開와 太陽은 陽에서의 開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오행 속성상의 관계에서 脾는 土이고 小腸은 火이기 때문에 이는 土와 火가 母子관계이자 또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 火土同根적인 관계로써 相通하고 있다. 그러므로 小腸을 치료할 때는 胃를 치료하는 방법과도 통한다. 脾病에 瀉小腸火하는 원리는 瀉黃散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小腸病에 潤脾土하는 방법은 小腸泄에 사용하는 芍藥湯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4. 肺는 手太陰에 속하고 肺主宣發 및 肅降하며 肺는 水之上源이 되어 上焦에 위치한다. 膀胱은 足太陽에 속하고 膀胱은 津液을 저장하여 氣化시키고 下焦에 위치한다. 肺와 膀胱은 비유컨대 上下로 뚫여있는 管의 양 끝단 상부와 하부에 위치하여 上下가 잘 疏通되기 위해서는 어느 一端이 막혀있어서는 안되는 관계로 이에 따라 肺病에 膀胱水를 淸利하여 分利淸濁하고 降濁하여 치료하는 것이고 膀胱病에는 肺氣를 淸하여 吐法을 兼하여 肺의 宣發, 肅降기능을 회복시켜 치료하는 것이다. 肺病에 쓰는 瀉白散과 膀胱病에 쓰는 五苓散에서 이러한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太陰은 陰에서의 開와 太陽은 陽에서의 開의 기능으로 相通하며 오행 속성상의 관계에서 肺는 金이고 膀胱은 水이기 때문에 이는 그 母子관계로써 相通하고 있다.

5. 腎은 足少陰에 속하고 腎은 水臟으로 津液을 주관하며 三焦는 手少陽에 속하고 三焦火로써 水道를 조절하므로 腎水와 三焦火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少陰은 陰에서의 樞와 少陽은 陽에서의 樞의 기능으로 相通하며 오행 속성상의 관계에서 腎은 水이고 三焦도 火이므로 이는 그 水火의 相成관계로써 조화되며 相通한다. 腎病에 調和三焦하는 원리는 眞武湯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三焦病에 補腎하는 원리는 六味地黃丸으로도 알 수 있다.

6. 命門은 手厥陰에 속하고 胃는 足陽明에 속하며 命門火는 脾胃土의 근원이 되며 厥陰은 陰에서의 闔과 陽明은 陽에서의 闔의 기능으로 相通한다. 오행 속성상의 관계에서 胃는 土이고 命門은 火이기 때문에 이는 그 母子관계로써 相通하고 있다. 胃虛에 大補右腎하는 원리는 八味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參考文獻

1. 漢醫學大辭典編纂委員會, 漢醫學大辭典〔基礎理論編〕,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9
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도서출판 까지, 1990
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1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5. 楊上善, 黃帝內經太素, 大成文化社, 1986
6. 李梴, 國譯編註醫學入門, 南山堂 影印本, 1984
7. 李梴, 編註醫學入門, 大成文化社 点校本, 1990
8. 許浚, 東醫寶鑑 內景篇, 大成文化社, 1990
9. 許浚, 東醫寶鑑 雜病篇 卷之一~四, 大成文化社, 1990
10. 許浚, 國譯東醫寶鑑, 驪江出版社, 1994
11. 朱震亨, 丹溪醫集, 人民衛生出版社, 1993
12. 張介賓, 景岳全書 上下卷, 大成文化社, 1988
13. 張介賓, 國譯 景岳全書 四券, 一中社, 1993
14. 汪訒庵, 醫方集解 重校版, 一中社
15. 李正來, 醫易同源 上, 동양학술원, 1993
16. 李正來, 醫易同源 下, 동양학술원, 1993
17. 朴贊國, 臟象學, 成輔社, 199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8. 大韓東醫生理學會編, 東醫生理學, 경희대학교 출판국, 1993
19. 金完熙, 한의학원론, 成輔社, 1990
20.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90
21. 康秉秀 外, 本草學, 永林社, 1991
22. 楊力, 中醫運氣學. 法仁文化社, 2000
23. 玉到勳,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에 대한 考察, 경희대학교대학원, 1989
24. 李容範, 楊上善의 三陰三陽 學說에 대한 硏究, 경희대학교대학원, 1996
25. 林鎭錫, 陰陽離合論의 三陰三陽과 開闔樞,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1권, 1998
26. 白上龍, 臟腑와 身形의 兵機 및 病症에 대한 比較考察,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3권2호, 2000
27. 이용태, 臟腑相通과 芝山圖表의 理解, 大韓形象醫學會誌 4권, 2003
28. 丁彰炫, 三陰三陽의 開闔樞에 대한 新知見, 大韓原典醫史學會誌 16권2호, 2003
29. 蔣燕, 淺談李梴的"臟腑相通論", 遼寧中醫雜誌 第5期, 1990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